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추진계획

생태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최 종 원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폐자원관리과장 등 역임

tel. 044-201-7220 | sudal@korea.kr

들어가며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용어는 1983년 멕시코 셀레스툰강 하구 일대에서 홍학(紅鶴) 서식지를 해양레저지구로 개발하려던 계획의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현재 셀레스툰강 하구는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는 생태관광 지역으로 유명하다. 우아한 자태의 홍학 무리를 비롯해 고래, 바다거북 등을 수시로 볼 수 있다. “개발이나, 보전이나”의 갈림길에서 주민들이 내렸던 결단과 노력이 항만이나 레저단지의 개발보다 더 큰 이익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순천만도 이와 비슷한 대표사례다. 1990년대 순천만 갯벌은 골재를 채취해 수익을 얻기로 결정할 정도로 쓸모 없는 땅으로 여겨졌으나, 환경단체의 설득 끝에 순천시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순천만은 아름다운 갈대숲과 흑두루미가 있는 생태관광 명소가 됐다. 연간 2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에 연간 940억 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남기고 있다.

2010년 국립공원 명품마을 제1호로 지정된 관매도의 경우,

생태관광으로 마을 소득이 10배가량 늘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귀향하는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자연을 찾아 온 생태관광객으로 마을은 활기를 띠고, 방문객들은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보전활동에도 동참하게 된다.

1. 생태관광, 왜 필요한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관광을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교육이나 해설을 통해 환경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자연관광”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관광·레저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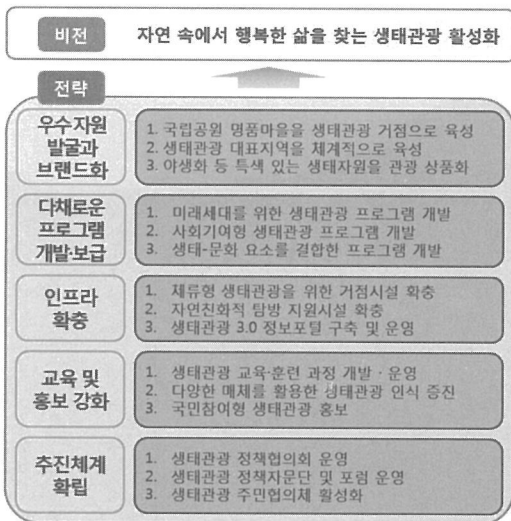
2.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국내에서 생태관광 정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이에 전문가 자문과 주민 토론을 거쳐 그동안 추진해 온 생태관광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순천만, 관매도 등 생태관광으로 성공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리더의 활동, 주민의 보전의식, 관련기관의 지원과 홍보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포늪, 왕피천 등의 사례와 같이 생태자원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리더의 부재, 체류 인프라 부족, 홍보 미흡 등이 주요 저해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생태관광을 성공시키는 요인을 확산시키고 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우수자원 발굴 등 5개 전략을 정리하고 전략별 세부과제 총 15개를 발굴하였다.



1) 우수 생태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생태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2017년까지 명품마을 18개소를 조성하면서, 마을별 특성을

살린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해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이외에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우수한 곳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한다.

2)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태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생태관광의 주 고객층인 가족단위 여행객, 체험학습·수학여행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결합형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3)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는 높아지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생태탐방연수원을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우포늪·순천만 등 지역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생태관광지역의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협의체의 운영, 스토리텔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적, TV방송 등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태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5)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

생태관광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역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문가자문단을 통해 생태·문화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앞서 언급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생태관광'의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립하고 이러한 경험을 여타 생태관광지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모델 육성 대상지는 국립공원 명품마을과 그 외에 생태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영산도, 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인적역량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향상시켜 2017년까지 2013년 대비 관광객과 생태관광 소득을 모두 2·3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지역별 특징

영산도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주민 요청에 따라 공원 내에 남게 된 마을로 무인도화 되고 있었으나 2012년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이 살아나고 있다. 층암절벽, 코끼리 바위 등 영산8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제주 선흘1리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의 협력기반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동백동산습지와 빙뒀굴, 4.3항쟁 유적 등 독특한 생태·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인제 생태마을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하늘내린인제 에코투어사업단을 중심으로 마을별 테마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람사르 습지인 대암산 용늪, DMZ 등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고창 용계마을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연보전 의지가 매우 강하여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군(郡)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람사르습지인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세계적 생태·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인제
생태마을제주
선흘 1리고창
용계마을

2) 주요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공모델 지역을 알리고 가족여행, 체험학습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자연환경해설 등 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을 발굴·정착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마을별로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립공원 명품 마을 영산도는 영산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조성, 제주 선흘1리는 생태관광 숙소 조성, 인제 생태마을은 용늪 가이드탐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창 용계마을은 2014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역량 교육, 탐방로·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맺음말

“2009년에 본 영산도는 낙후된 섬이었고 주민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 다시 찾은 영산도는 떠났던 젊은이가 다시 찾은 고향이 되었고, 어른들 표정도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십니다.” 금년 5월 주민 토론회에서 흑산 초등학교 영산분교장 선생님이 변화된 마을의 모습에 감동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아름답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역 주민과 탐방객이 함께 행복해지는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